

김의 選拔育成을 위한 基礎調査

I. 김의 游離糸狀体 培養 및 幼体의 單胞子放出

高 楠 表 · 孫 徽 鉉*

(1976年3月1日 接受)

STUDIES ON LABORATORY CULTURE OF FREE-LIVING CONCHOCELIS OF *PORPHYRA* AND METHODS OF MONOSPORE LIBERATION

Nam Pyo Go* and Cheol Hyeon Son*

In order to find effective seed collection method from cultivated *Porphyra*, benthic diatom elimination, culturing conditions of Conchocelis, liberation of conchospores and treatment of the fronds to obtain monospores have been studied.

Elimination of benthic diatoms from *Porphyra* fronds is successfully performed by careful brushing the fronds in sea water and freshwater alternatively.

For the culturing of Conchocelis Schleiber's solution enriched with only soil extracts, vitamins and Fe-EDTA was satisfactory.

Growth under 16 hours illumination is 1.29 times faster than those under 10 hours illumination. When the culturing water was aerated the growth was 1.41~1.50 times faster than the growth in stagnant water.

Total amount of conchospores liberated from Conchocelis which has been cultured under aeration was much more than those of conchospores under stagnant condition.

Effective liberation of monospores was observed in the fronds which have been dried in air for 6 hours (21.23~24.19% water content).

緒 言

김 翳殖에서 選拔育成法이 널리 活用되기 為해서는 먼저 翳殖場의 環境이나 翳殖時期, 生產目標等 翳殖條件에 適合한 優秀品種을 菲集하여 그 系統保存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에는 保存한 品種의 김 種苗를 需要에 充足할 수 있도록 量產하는 技術이 連結될 수 있어야 한다. 翳殖김의 品種選擇問題는 三浦(1971) 片山等(1973)이 報告한 바와 같이 優秀性이 認定된 *Porphyra yezoensis* Ueda f. *narawaensis* Miura이 나

P. tenera Kjellman f. *tamatsuensis* Miura 等의 새 品種이 開發되었으므로 어느 程度 方向이 定立된 塤 이다. 그런데 이들 새 品種의 김은 繁殖力이 弱하고, 三浦等(1975)이 밝힌 바와 같이 翳殖時期가 經過함에 따라 單胞子에 依하여 在來品種과 자리 바꿈되어 가는 傾向이 있으므로 品種의 系統保存이 어렵고 種苗를 量產할 수 있는 技術이 더욱 切實하게 要求된다.

岩崎(1965, 1972)는 游離糸狀体의 培養方法에 對한 有益性과 量產할 수 있는 採苗方法을 提示하였고 木下等(1974)은 김(*P. tenera*)은 游離糸狀体를 利用하

*麗水水產專門學校, Yeosu Fisheries Technical Junior College.

여 採苗하는 便이 有益하고 방사무늬김(*P. yezoensis*)은 人工培養한 葉體에서 單胞子를 받아서 採苗하는 便이 좋다고 展望하였다.

筆者等은 種苗를 量產하는 方法을 探討하기 為하여 游離系狀體의 一般的인 培養方法과 葉體로부터 單胞子의 放出은 誘發하여 採苗할 수 있는 可能性을 研究하기 위한 一連의 實驗을 하였다.

材料 및 方法

游離系狀體의 培養에 쓰인 品種은 麗川郡 南面 小橫干島에 있는 畜殖 김밭에서 選拔한 방사무늬김이다. 果胞子를 받을 때 硅藻類의 混入을 防止하기 為한 母藻의 洗滌은 岩崎(1972)의 方法대로 잘 成熟한 깨끗한 葉體에서 蛋果斑部分을 切取하여 60~70°C로 加熱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ulturing media

A: Foyen's solution	
NaNO ₃	10mg
NaHPO ₄ ·12H ₂ O	2mg
Soil extracts	5ml
Sea water	100ml
B: SW I solution	
Filtered sea water	1000ml
KNO ₃	72.3mg(10mg/l as N)
KH ₂ PO ₄	8.8mg(2mg/l as P)
Fe-EDTA	0.5mg(as Fe)
Tris	50mg
pH	8.8~8.2
C: ESP solution	
Distilled water	100ml
NaNO ₃	350mg
Na ₂ -glycerophosphate	50mg
Fe-EDTA	2.5mg
P II metals	25ml
Vitamin B ₁₂	10mg
Thiamine	0.5mg
Biotine	5μg
Tris	500mg
pH	7.8
D: SW II solution	
Sea water	1,000ml
KNO ₃	72.2mg
KH ₂ PO ₄	4.4mg
Na ₂ -glycerophosphate	10.5mg
Fe-EDTA	0.5mg
Tris	500mg
pH	8.0~8.5

減菌한 濾過海水에서 毛筆로 葉體의 表面을 잘 닦아낸 다음 1cm² 程度의 切片을 만들어서 海水에 몇 차례 행구어 내는 方法과 右田의 助言(私信)으로 表面을 닦아낸 葉體의 切片을 水道水와 海水로 번갈아 4~5回 행구어 내는 方法을 比較하였다. 果胞子를 받을 때는 샤아래에 슬라이드 글라스 1개씩을 깔고 그 위에 洗滌한 母藻의 切片 하나씩을 올려 놓은 다음 培養液을 채워서 密閉하여 두었다가 約 20日 만에 檢鏡하였다. 위에 말한 모든 器具나 操作方法에는 無菌狀態를 유지할 수 있도록 細心한 注意를 기울였다.

培養液은 培養方法의 普及效果를 考慮하여 Table 1과 같이 비교적 簡便하고 方便하기도 쉬운 것을 擇하여 그 優劣을 比較하였다. 물결기는 20日間隔으로 그 上澄液을 떨어내고 그 量 만큼 다시 補充하였다. 照度는 1,500~3,000lux로 調節하였고 밤에 照明할 때는 白色螢光燈을 使用하였다. 成長度는 培養한 系狀體를 脫水機로 물기를 뺀 다음 그 生重量을 秤量하여 比較하였다. 蒜胞子漿의 形成과 成熟을 促進시키는 方法은 岩崎(1972)의 方法에 따라서 지름 7~8mm의 游離系狀體를 粉末로 가볍게 갈아서 새 培養液에 옮기고 短日處理(500~1,000lux 1日 8時間 照明)하였으며 水溫은 23~27°C(室內 水槽 溫度)範圍에 두었다. 蒜胞子의 放出은 14~20°C로 低溫處理를 시작한 다음 繼續的인 檢鏡에 依하여 放出의 絶頂이 豐想될 때 器底에 附着할 것을 豊慮하여 20lux 以下로 어두운 곳에서 放出시켰다. 蒜胞子의 放出量 調査는 上澄液을 떨어내고 胞子液을 濃縮시켜서 플랑크톤 計算板으로 計數하였다.

單胞子의 放出에 쓴 葉體는 亦是 小橫干島에서 採取하였다. 1975년 10월 25일에 自然採苗한 김밭에서 11월 下旬에 最大 葉長이 10cm 程度 되었을 때 손으로 뜯어낸 全葉体(0.5~10cm)를 試料로 하였다. 即 김밭에서 蒜竹채로 切取하여 온 김을 각각의 條件으로 말린 다음 全葉体를 뜯어서 秤量하여 풀리에 칠лен봉투에 싸서 -10°C 程度로 冷藏하여 두었다가 濾過海水 1ℓ에 마른 김 2g씩을 담가서 20lux의 弱光 밑에 72時間 두었다가 葉体만 조용히 들어내고 蒜胞子 때와 같은 方法으로 計數하였다. 試料의 乾燥方法은 김 葉体가 蒜竹에 붙은 채로 空中에 달아매고 햇볕에 말린 方法과 木下等(1974)이 提示한 실리카겔로 말린 方法을 썼다. 乾燥한 葉体의 含水率 計算은 木下等(1974)의 濕重量을 基準으로 한 다음 式으로 計算하였다.

$R = (W-w)/W \times 100$ (但 R는 含水率(%), W는 葉
体의 乾燥重量, w는 葉体의 完全乾燥重量)

葉体의 生重量은 乾燥한 葉体를 海水에 담가서 胞
子를 放出시킨 다음 脱水機로 물기를 빼고 秤量하였
다. 葉体의 完全乾燥重量은 105°C로 調整한 乾熱器
속에서 重量의 變化가 없을 때까지(2時間程度) 말렸으
며 秤量할 때는 메시케이터에서 식힌 후에 實施하였
다.

結 果

1. 游離糸狀體의 培養成績

果胞子를 받을 때 珊藻類를 除去하기 위한 母藻의
洗滌 效果는 Table 2와 같이 3回에 걸쳐서 받은 250
事例 中 62事例만이 珊藻類가 定全히 除去되었다. 또
水道水와 海水에 交代로 험구어 낸 方法과 海水에만
험구어 낸 方法을 比較하면 前者の 경우가 倍나 좋다.

Table 2. Elimination of epiphytic diatoms on *Porphyra* fronds by various cleaning methods¹⁾

Cleaning methods	Number of cleaned fronds	Number of frond treated	Date of the experiments
Iwasaki method(1972)	30	150	Feb. 17—Apr. 1, 1975
Migita method ²⁾	32	100	Dec. 10—30, 1975

¹⁾ The result of the elimination experiment was determined by microscopic observation 20 days after cleaning.

²⁾ Personal communication

成長度를 比較한 實驗은 培養液 A를 使用하여 常法
으로 2個月間 培養하여 지름 2~4mm로 成長한 糸狀

體의 群落을 모아서 脱水機로 물기를 뺀 다음 1g씩을
秤量하여 培養한 結果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Growth of Conchocelis in the different culturing conditions

Culture media	Airation	Illumination hour	Wet weight of Conchocelis	Growth rate to different period of airation	Growth rate to different period of illumination
A	—	10	2.84		10
A	—	14	3.23		114
A	—	16	3.67	100	129
A	+	16	5.38	147	
B	—	16	4.01	100	
B	+	16	6.03	150	
C	—	16	3.96	100	
C	+	16	5.58	141	
D	—	16	4.12	100	
D	+	16	6.04	147	

培養液과 成長과의 關係는 培養液 A만이 若干 나빴
으며 그 외에는 뚜렷한 差가 없었다. 다음에 照明時
間과 成長과의 關係를 보면 本實驗의 範圍에서는 照
明時間이 길수록 成長이 빨랐고 10時間 照明한 것에
比하여 16時間 照明한 것은 1.29倍가 빨랐다. 또 培養
液을 搅拌한 通氣 培養法은 靜置培養法에 比하여 培養
液에 따라 1.41~1.50倍가 빨랐다.

成長度와 胞子의 放出量과의 關係를 알아보기 위
하여 通氣培養했던 糸狀體와 靜置培養했던 糸狀體를
同一 條件으로 胞子囊을 形成시켜서 放出시킨 結果

는, 이들 兩者間의 胞子放出率은 1% 水準으로 有意
性이 없다.

2. 單胞子 放出의 誘發 効果

單胞子의 放出을 위한 誘發 効果를 생김 10g를 基
準으로 換算하면 Table 4와 같다. 本實驗에서는 두번
다 6時間 日乾한 含水率 24.19~21.23%로 된 葉体에
서 가장 많이 나왔고 생김 10g에서 最高 100萬個가
放出되었으며 2時間 日乾한 것은 30~40萬個에 不過

했다. 또 실리카겔로 말린 것은 2시간 둔 것과 4시간 둔 것 사이에 含水率의 差나 胞子放出量의 差가 보이지 않았다.

考 察

果胞子를 받을 때 硅藻類를 除去하기 위한 母藻의 洗滌方法은 右田가 助言한 대로 葉体의 表面을 毛筆로 잘 닦아 내고 海水와 水道水로 헤구어 내는 方法으로도 Table 2와 같이 100事例 中에서 32事例가 完全히 除去되었으므로 糸狀体의 游離培養法으로서는 구배여 館脇(1971)나 岩崎(1965)等이 말한 無菌培養法을 쓰지 안해도 좋겠다. 그리고豫備實驗을 해 본結果 木下等(1974)이 말한 半固体培養器와 液體培養器에 분질려서 엣어내는 方法은 毛筆로 닦아 내는 方法에比하여 効果가 적었다. [母藻의 切片을 海水에만 헤군(岩崎方法) 편이 水道水와 海水에 交代로 數回 헤구는(右田方法) 편보다 効果가 나쁜 것은 2~3月이 김葉体에 硅藻類의 汚染이 많은 時期이므로 그 原因이 季節의 特이성 水道水의 影響인지는 不明하다.

Table 4. Number of monospores from the *Porphyra* fronds treated by different dehydration methods

Drying conditions	Water content(%)	Number of monospores/g of the frond
2 hr drying in the air	63.09	408×10^3
4 hr drying in the air	37.03	872×10^3
5 hr drying in the air	30.88	912×10^3
6 hr drying in the air	27.51	952×10^3
2 hr treatment in silca gel	59.48	448×10^3
4 hr treatment in silca gel	57.01	304×10^3

培養液에 對하여 木下等(1974)은 天然海水는 場所時期等에 따라서 荒養鹽의 變化가 크므로 人工海水가 安定하다고 하였고, ASP₁₂-NTA-Provasoli(1963)의 ASP系統의 培養液을 더 補強해서 使用하였다. 또 岩崎(1965)는 3種의 荒養鹽 添加海水(ASW₈, SW I, SW II)의 9種의 合成培養液(ASM, ASP₁, ASP₂, ASP₂-NTA, ASP₆, ASP₇, ASP₁₂-NTAS, ASP₁₂)에 對하여 그들이 糸狀体의 成長과 肥胞子의 形成에 미치는 優劣順을 計렸다. 그런데 岩崎(1972)는 補強海水

로서는 가장 成積이 나쁘다고 한 SW I(本實驗에서 使用한 培養液 B)을 使用하고 人工海水로는 ESP強化海水(本實驗에서 使用한 培養液 C로서 館脇(1971)는 海水에 混合하여 使用한다고 하였는데 岩崎(1972)는 市販人工海水에 混合 使用)를 使用하라고 했다. 筆者는 糸狀体의 荒養要求를 調査하는 精密實驗이 아니므로 Table 1과 같이 比較的 購入하기가 쉽고 값이싼 培養液만을 使用하였다. 各培養液에 따른 成長度는 솔라이버液에 土壤抽出液만을 添加한 培養液 A만若干 나쁘고 다른 培養液 사이에는 別로 差가 없었으며 肥胞子도 제대로 形成되었므로 이들 培養液은 어느 것이나一般的인 培養液으로서 充分히 使用價值가 있다고 생각한다.

游離糸狀体의 成長度에 對하여 木下等(1974)은 照明時間은 12時間에서 16時間으로 延長하면 1.3倍가 빨라지고 培養器를 振動시켜서 搅拌해주면 靜置培養에 比하여 1.5倍가 빨라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岩崎(1972)는 照明은 하루에 13~14時間이 適當하다고 하였고 通氣 搅拌을 해주면 大端히 빨라진다고 하였다. 本實驗에서는 Table 3과 같이 10時間 照明한 것은 14時間 照明한 것에 比해서 1.14倍가 빠르고 16시간 照明한 것은 1.29倍가 빨랐으나 木下等(1974)의 内容과 비슷하나 岩崎(1972)의 13~14時間 照明이 좋다는 결과와는 2~3時間의 差가 있다. 通氣 培養한 効果도 培養液에 따라 1.41~1.50倍로 成長이 빨랐으나 木下等(1974)의 振動効果와 비슷하였다. 또 岩崎(1972)는, 糸狀体는 1mm以下의 크기에서도 잘 成長하므로 糸狀体를 빨리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糸狀体群落을 자주 分割하여 주는 것이 한 方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右田等(1967)은 糸狀体는 그 가지의 基部의 細胞列이 클 수록 成長이 잘 된다고 하였으나 糸狀体의 成長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細切할 때의 알맞는 切片의 크기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木下等(1974)은 糸狀体가 徒長하면 肥胞子形成過程에서 枯死하기 쉽고 肥胞子의 形成도 적으며 또한 形成된 肥胞子가 葉体로 순조롭게 成長하지 못한例가 많았다고 하였다. 本實驗에서는 通氣培養으로 빨리 成長한 糸狀体와 靜置培養한 糸狀体 사이에는 單位量(1g)에서의 肥胞子放出量의 差에有意性이 없으며 成長이 빨라진 만큼 肥胞子를 더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이들 肥胞子의 充實性與否에 對한 調査는 못하였다. 低溫處理로부터 肥胞子가 放出하는 데 까지의 所要時間은 右田等(1966)이 말한 바와 같이 2日째부터 放出이 始作되었고 4日만에 絶頂이豫想되더니 5日만에

거의 끝났다.

單胞子를 利用한 덮발 採苗法은 일찍부터 漁民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木下等(1974)이 말한 바와 같이 맹크採苗나 비닐봉투式 採苗를 할려면 必要한時間에 所要 胞子量을 放出시킬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하면 적어도 언제 얼마 만큼의 胞子가 나올 것이라는豫想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木下等(1974)은 人工培養한 김 葉体를 含水率 25~30%로 乾燥시켜서 冷藏하여 두었다가 쓰면 생김 10g에서 360~900萬個의 單胞子가 放出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最高로 放出된 條件인 6時間 日乾에서도 10g當 100萬個程度가 放出된에 不過하다. 이것은 自然產 김을 利用하였고 特히 早生種인 김(*P. tenera*)이 若干混生된 關係인지 또는 乾燥方法이 나쁜 탓인지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1.2×18m되는 김밭 1장의 全網糸 길이는 300m程度 되며 1cm에 30個의 胞子를 附着시키면 90萬個의 胞子가 必要한 셈이니 생김 10g에서 100萬個의 單胞子만 나와도 集約的인 採苗는 可能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같은 結果는 덮발에 依하여 採苗할 境遇에도 適用될 것이다. 即 單胞子의 放出은 6時間 露出에서 많이 되므로 業界에서 活用하고 있는 採苗層을 4~5時間露出線에서 5~6時間線으로 높이면 採苗도 잘 되고 同時に 害敵生物 驅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問題는勿論 더욱 細密한 追試가 必要할 것이다.

單胞子나 裂胞子의 放出數를 調査할 때 양쪽 모두 20lux 程度의 弱光 밑에서 放出시켰는데 裂胞子의 境遇은 集團으로 뭉치는 傾向이 있었고 濃縮液을 振動시킴으로써 고르게 퍼지는데 比하여 單胞子는 集團으로 뭉치는 傾向이 적다. 이것은 右田(1972)가 밝힌 대로 裂胞子는 裂胞子囊枝 안의 모든 裂胞子가 그 가지의 先端部에 있는 開口部에서 放出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放出된 裂胞子나 單胞子가 오래도록 器底에 附着하지 않고 또한 서로 엉켜지지 않은 것은 20lux以下의 弱光도 그 原因이 되겠고(右田, 1972), 胞子에 묻어있는 粘液의 影響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要 約

김의 選抜育成에 必要條件인 採苗를 量產할 수 있는 技術을 開發할 資料를 얻기 위하여 游離糸狀體를 培養하여 그 成長度 및 裂胞子의 放出狀態를 調査하였고 單胞子를 放出시키는 誘發效果를 調査하였다.

1. 單胞子를 받을 때 母藻의 洗滌方法은 毛筆로 葉體表面을 잘 닦아 내고 水道水와 海水로 번갈아 몇번

헹구어 낸 結果, 菌胞子를 받은 100事例中 32事例에서 珪藻類가 完全히 除去되었으므로 一般的의 游離糸狀體의 培養에는 複雜한 無菌培養法을 使用하지 안해도 좋다.

2. 游離糸狀體의 培養液으로는 술라이버液에 土壤抽出液이나 또는 비타類와 Fe-EDTA만을 添加시켜서도 培養效果를 얻을 수 있다.

3. 游離糸狀體의 成長은 照明時間 10時間을 16時間으로 延長하면 1.29倍가 빨랐고 通氣培養은 靜置培養에 比하여 培養液에 따라 1.41~1.50倍가 빨랐다.

4. 通氣培養으로 成長이 빨랐던 糸狀體와 靜置培養한 糸狀體間에는 裂胞子 放出에 有意性이 없으므로 成長이 더 된 만큼의 裂胞子量을 더 받을 수가 있다.

5. 單胞子 放出의 誘發效果는 6時時 日乾하여 含水率이 21.23~24.19%로 된 葉體에서 가장 많이 放出되었다.

6. 義殖 김의 葉體에서 單胞子를 利用한 集約的인 採苗方法의 可能성이 確認되었다.

※ 이 研究는 1975年度 文教部研究助成費에 依한 研究 結果의 一部임.

文 献

岩崎英雄(1965) : アサクサノリの生理状態に關する研究. 廣島大水産學部紀要, 6(1), 133~211

岩崎英雄(1972) : フリー糸狀體の 培養と採苗の手引き.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聯合會, 東京.

片山勝介・杉山瑛之・篠原基之・三宅與志雄(1973) : ノリ義殖品種の特性と生育環境について. 岡山縣水產試驗場報告.

木下祝郎・寺本賢一郎(1974) : 海苔. 大日本圖書株式會社, 東京.

右田清治(1972) : ノリ裂胞子と單胞子の 着生. 長崎大學水產學部研究報告, 33, 33~48.

右田清治・安部昇(1966) : アマノリ糸狀體の 裂胞子形成について. 長崎大學水產學部研究報告, 20, 1~10.

右田清治・金重來(1970) : ノリ糸狀體의 水平生長.

長崎大學水產學部研究報告, 30, 1~8.

三浦昭雄(1971) : 海苔의 義殖品種. 全國海苔貝類漁業協同組合聯合會, 東京.

三浦昭雄・伏屋満(1975) : ナラワスサビノリ의 芽變り現象과 그의 繁殖性について. 水產增殖, 22(3, 4), 93~100.

鎌脇正和(1971) : 海藻의 培養. 海洋科學, 3(11), 41~45,